

/ 창간 70주년 축하 메시지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강원지역 향토언론의 씨앗을 뿌린 강원일보사가 창간 7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0년간 강원일보는 도민의 눈과 입이 되어 지역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참언론으로서, 건설산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과 건설산업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더 큰 강원도 만들기의 견인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관급공사 최저낙찰제 폐지

정부 내년 1월부터 종합심사제로 개편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담겼다. 원주 등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한 규정 일몰시한을 2017년 말에서 2년 더 늘렸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건설업체에 계약금액의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 5000만원 이하 소액인 물품·용역

계약에는 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때 약속한 대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안은복 rio@kado.net

#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청신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인천발 KTX 노선 건설, 청라~강서 간 BRT 시범사업 차고지 건립 등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증액된 예산은 도로분야 7000여억원, 철도분야 1조3000여억원 등 2조4000여원을 웃돈다.

정부는 애초 내년도 예산안에 이들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국토위 의견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될지 주목된다.

국토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1일 예산소위를 통과한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처리한다.

앞서 예산소위에서는 국토교통부 소

## 국토위 예산소위서 반영 도로·철도 총 2.4兆 증액 예결특위 수용범위 주목

관 21조6593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2조4166억원을 증액, 총 24조759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구체적으로 △도로분야 8조3149억원→9조201억원(증액 7052억원) △철도·도시철도분야 7조1828억원→8조4803억원(1조2975억원) △항공 및 공항 1437억원→1925억원(488억원) △수자원분야 2조7194억원→2조2907억원(1158억원) △산업단지 6301억원→6579억원(278억원) △주택분야 1351억원→1870억원(519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에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여주~원주 철도 △인천발 KTX 노선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국지도 98호선 도로 건설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 △경서동~왕갈동 간 도로 개설 등이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수자원 공사 지원을 위한 예산 3400억원과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2016 코리아드론챌린지 대회를 위해 요청된 국비 3억원도 국토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예산안은 2646억원에서 2778억원으로 132억원이, 새만금개발청은 684억원이던 예산안이 1496억원으로 812억원 증액됐다.

한형용기자 je8day@

## 남원주역세권 걸림돌 사라졌다

### 진입구간 150m, 교량으로 변경 심의·결정

2500억원이 투입되는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역사 진입 구간의 교량 방식 결정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 남원주역 진입 구간을 교량으로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진입 구간은 8~10m 높이의 흙벽을 쌓아 철로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에 시는 흙을 쌓는 방식으로 철로가 건설되면 도심이 양분돼 지역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지하화, 또는 교량화를 철도계획 수립 시점인 2004년부터 요구해 왔다.

여기에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남원주역 토공부의 교량화 변경 시 추가 국고 투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역세권 개발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이 지난 9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으로 최

종 선정됨에 따라 상황은 급변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주~제천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는 철도시설공단과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진입 구간 150m를 교량으로 변경하도록 심의·결정하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2018년 개통 예정인 원주~제천 복선화 사업에 따라 신축되는 무실동 남원주역사를 중심으로 50여만㎡에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459억원으로, 이 중 10%는 원주시가, 90%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복합 환승터미널과 상업·주거시설, 활력광장 등이 조성된다. 지역특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 인근 혁신·기업도시,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한 창업·벤처지구도 들어설 전망이다.

정희훈기자

## 동해안 3단계 개발사업 본격화

대형 국책사업인 강원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대안입찰 방식의 동해항 3단계 북방파제 1·2공구 축조공사를 조달청에 발주의뢰했다. 동해해수청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방파제 1·2공구 곧 발주 3단계 방파호안·동방파제 내년 2월까지 설계 완료 하반기 중 공사 착수 추진

1공구 사업은 1534억원을 들여 방파제 700m를, 2공구는 1466억원을 들여 방파제 1000m를 각각 건설하는 규모다.

동해해수청은 당초 지난해 공사를 발주하려고 했으나, 해안 침식을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1년 동안 협의 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공사 발주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본격도에 진입하게 됐다.

을 거쳐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동방파제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에 발주해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사비 4000억원에 달하는 방파호안은 탄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은 동해항을 환동해권 물류 중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224억원을 들여 최대 10만t급 접안시설 7선석, 방파제 1.75km, 방파호안 2.3km 등을 축조하는 사업이다.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이 끝나면 약 4100만t의 하역능력을 갖추게 돼 동해항의 만성적인 체선율 해소는 물론 동시접안 선박 수가 현재 5만t급 이하 16척에서 10만t급 이하 23척으로 대폭 늘어나 북방물류 확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구실을 하게 된다. 현재 동해항의 체선율은 26.2%로 전국 평균 6.61%에 비해 매우 높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로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